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 (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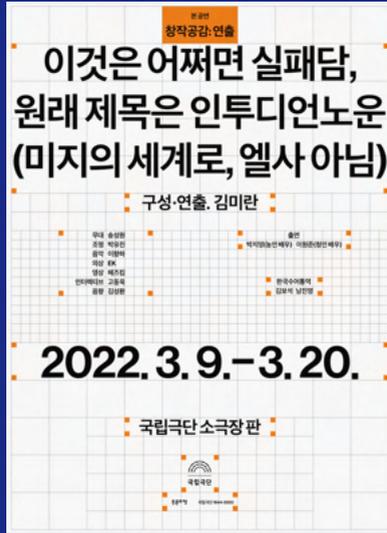
❖ 본 공연은 2021년 (재)국립극단의 [창작공감: 연출] 공모를 통해 선정, 개발되었으며 2021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소극장 판에서 창작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 작품은 소설집 『바깥은 여름』(김애란, 문학동네, 2017)에 수록된 단편 「가리는 손」의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021 [창작공감: 연출]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2021	01-03	공모 및 연출가 선정
	04 01	오리엔테이션
	04-07	정기/수시 모임, 리서치
	05 12	강연: 코다(CODA)에 대하여, 이현화
	06. 24	공동체상영회: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희
	07 14	관계자 대상 - 리서치 발표회
	07-11	워크숍 및 연습
	08 29	특강: 다큐멘터리 연극, 전강희
	09 03	특강: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 김원영
	11-12	창작과정공유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	01-04	본 공연 연습
	03-05	본 공연 @소극장 판



02 운영위원의 글

04 줄거리

05 구성·연출의 글

06 출연진

08 스태프 프로필

10 작품이해듣기 1
연출과 배우들의 토크 - 우리가 소통하기까지

16 작품이해듣기 2
작품 연대기

20 연습 스케치

22 만드는 사람들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창작공감: 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창작공감: 연출’은 작년 4월에 시작하여 11월과 12월에 쇼케이스 격에 해당하는 ‘창작과정공유’로 먼저 관객을 만났다. 세 작품 중 연출가 김미란의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이 마지막 순서였다. 처음 관객을 만나고 3개월 만에 정식 공연으로 관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 공연에는 두 명의 배우가 나온다. 농인 아티스트로 구성된 핸드스 피크의 단원인 박지영 배우와 작년까지 국립극단의 시즌 단원이었던 이원준 배우이다. 박지영은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농인이고, 이원준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청인이다. 연출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배우와 함께 ‘우리는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작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 팀이 자주 사용하는 연습실의 큰 거울에는 두 사람의 연대표가 그려져 있었다. 80년대와 90년대가 동일 시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라도 쓰는 것처럼, 이들의 연대기는 겹치는 지점 하나 없이 나란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 공연은 상대의 세계를 알아가고자 꾸준히 시도하는 작업이지만, 연출가는 그 결과가 ‘실패’일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제목을 통해 모두에게 공표하고 극을 시작한다. 또한 두 세계의 간극을 줄이고자, 직면한 역경을 헤쳐 나가는 극복 서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엘사 아님’이라는 부제를 달아 두었다.



제목은 공연이 지향하는 바를 ‘실패담, 언노운, 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연출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연 설명 없이 청인 관객들이 감각적으로 지영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동시에 농인 관객들이 청인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농인의 직관으로 공연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다. 아마 이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는 찰나의 순간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실패로써 다가갈지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김미란의 팀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

작년 과정 공유의 목표는 이 공연이 관객들, 그중에서도 특히 농인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였다. 이번 공연은 농인과 청인 모두와 소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시 ‘우리는 어떤 연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려본다. 답을 대신해 지난 연습실 풍경을 공유한다. 연습실에는 일반적으로 프로덕션을 구성할 때 필요한 인원 이외에도 두세 명의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농인 조연출이 있었다. 모든 연습실에 이들이 항상 상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발화된 말이 손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영상으로, 화면 속 글자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상대에게 전달되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 두 개의 세계 속에서 풍요로운 연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이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핸드스피크 소속 농인 배우 박지영은 국립극단 구) 시즌단원인 청인 배우 이원준과 함께 자신에 대한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배우는 함께 공연을 만들기 위해 소통 방식을 찾아 나선다.

백문백답,
밸런스 게임,
얼굴 그리기,
배드민턴 치기,
빙고,
릴스 찍기...

그리고 셰익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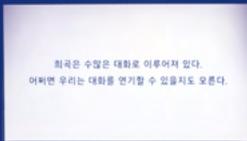
과연 이들은 연극을 만들 수 있을까?

A Deaf actor and member of Handspeak, Park Ji-young is given the task to create a play about herself—together with Lee Won-jun, a hearing actor and member of the NTCK during the previous season. The two actors who use different languages search for a new way of communication, so they can put on a play together.

100 Q&A questions
Balance game
Drawing faces
Playing badminton
Bingo
Shooting reels...

And Shakespeare.

Will they be able to create a play together?





구성·연출 김미란

이 공연의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이었습니다. 핸드스피크의 공연을 보고 나오며 이 제목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막 없이 수어 공연을 보며, '어떤' 세계에 들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배우가 서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꽤나 로맨틱한 상상을 하며 지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괜히 디즈니 뮤직비디오도 보다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영 배우의 세계로 들어간걸까,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배우의 어떤 양보와 배려만, 혹은 나의 세계로 들어오려는 지영의 노력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 공연의 제목에는 '어쩌면 실패담'이란 말이 앞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핸드스피크 소속배우 박지영과 국립극단 구) 시즌단원 이원준, 두 배우가 펼치는 최고의 앙상블은 어쩌면 이 공연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실패하고, 솔직하게 성공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지영의 세계에 속해있는 관객분들을 생각하며 만든 공연입니다.

지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관객분들이 지영의 경험들을 즐겁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관객은 해외에서 공연을 보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또 다른 세계를 여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소극장 판은 이제, 대한민국 서울 서계동 안 지영의 세계입니다.

건강히 즐겁게 여행하세요.)



박지영 Park Ji Young

연극

<엘리베이터> <사라지는 사람들> <치고받고놀래>

뮤지컬

<미세먼지> <난파클럽> <친절한 이웃들> <메모리즈>

이원준 Lee Won Jun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동양극장 2020> <2호선 세입자>

<연애플레이리스트> <망원동브라더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아단성> <죄와 벌> 외



A portrait of a man with short, light-colored hair,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He is wearing a dark t-shirt and has a small earring in his left ear. His hands are clasped in front of him.

한국수어통역

김보석 Kim Bo Seok

연극

<물고기로 죽기> <픽킹젠더>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나의 이야기 극장> 외

공연

<드래킹 콘테스트>

영화

<춤추는 혼잣말>

A portrait of a woman with short, light-colored hair and bangs,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She is wearing a dark t-shirt and has small earrings in both ears. Her right hand is raised, pointing upwards.

한국수어통역

남진영 Nam Jin Young

연극

<임지윤의 하루> <여기, 한때, 가가> <떠돌이 개 두 마리>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나의 이야기 극장>

공연

<드래킹 콘테스트>

구성·연출

김미란

Kim Mi Ran

연극

연출 <탈춤의 목적> <fan> <낭독의 목적> <영지> <G의 영역>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좋아하고있어> <갈매기B> 외

무용

연출 <한국무용?> 외

뮤지컬

작 <미스터코트> 외

무대

송성원

Song Sung Won

연극

<로테르담> <더 나은 숲> <서천꽃밭이야기> <아웃오브러브> <너를 만난다>
<용종절제술> <영지>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좋아하고있어>
<갈매기B> <구직> <사랑과 교육> <제르미날> 외

무용

<한국무용?> <창세무가> <비극: 내일을 위한 우화>

조명

박유진

Park Yu Jin

연극

<세븐 씬> <화성은 수원에서 하나도 안 멀다>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마음의 범죄> <변신> <마트료시카> <육망이론-배반의 장미> <영지> <끝 수 없는 불꽃>
<오를라> <테이레시아스의 눈> 외

무용

<한국무용?> <탈춤의 목적>

음악

이향하

Lee Hyang Ha

공연

음악감독 <짓-사자의 언어>

합곡

연출·작곡 <달의전쟁-말의 무사 이성계>
연출·음악·출연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3-가브료슈>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2-마리우스>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1-팡탄> <다시 봄>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수궁가> 외

의상

EK(이은경)

Lee Eun Kyung

연극

<콜타입> <신신방> <붉은낙엽> <더 나은 숲> <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닭꾸우스> <고역>
<발가락 육상천재> <왕서개 이야기> <영지> <초치원 해문미>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우산도둑> 외

영상

헤즈킴

Hez Kim

연극

<보더라인> <당신의 인생이 예술입니다>

공연

기록영상제작 <Re:장례> <두산아트랩> <루돌프>

전시

기록영상제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냉장고환상> <수림미술상>

인터랙티브

**고동욱
(이스트허그)**

Ko Dong-Uk
(EASThug)

연극

<나, 해석:나로살고져> <박인환, 시를 살다> <우리별>
<산책하는 침략자> <왕복시간> <그들의 적>

뮤지컬

<월명> <적벽> <경성스케이터> <난설> 외

음악

김성환

Kim Sung Whan

연극

<우주에서 살아남기> <다 타버리고 난 후에야> <SHAME SHAME SHAME>
<practice alone> <아방가르드 신파극>

공연

<아임더처치> <싱크로다이브> <교환신체론> <인더스트리얼 퍼포먼스>
<Formed> <멀리까지 여행하는 방> <데카당스 시스템 아플라>
<every K body> <닐스의 모험을 위한 인덱스> 외

조연출

도민주

Do Min Ju

연극

연출 <뉴비를 위한 메타버스 사용설명서>
창작·연출·출연 <미래 기념비 탐사대>
창작·출연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공연

시노그라퍼 <연박상> <ALICE IN HERE : Gwangju>

조연출

박아름

Park Ah Reum

연극

출연 <치고받고놀래>

뮤지컬

출연 <난파클럽>

한국수어통역

이화정

Lee Hwa Jung

연극

<아가멤논> <열하일기> <문밖에서>

기타

제22회 가치봄영화제 개막식 외

한국수어통역

신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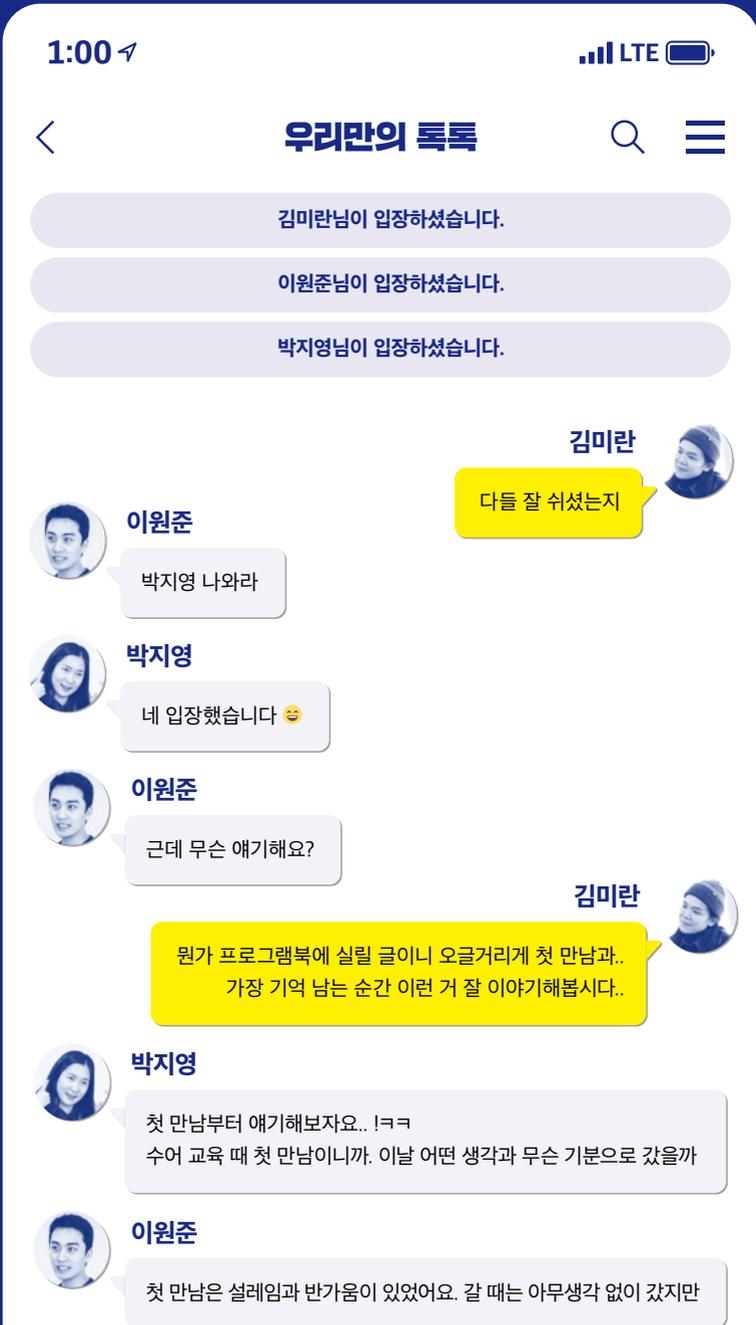
Shin Sun A

연극

<어느 마을> <여기, 한때, 가가> <제자리에서 정지한 상태로 180도 회전하기>

기타

제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제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김미란



난 일단 원준에게 배우가 된 계기를 3시간 동안 듣고 감

이원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영



ㅋㅋㅋㅋ 초딩때부터

김미란



둘이 인스타 교환한 게 신기. 서로 들어가 봤어?

이원준



바로 팔로잉했죠. 사실 팔로잉하고 바로 피드를 보지는 않음

이원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영



ㅋㅋㅋㅋ

이원준



하지만 인스타로 지영이 어디 갔는지, 뭐 먹는지, 그런 거 보면서 취향을 알게 됨

박지영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잘 하지 않아요..ㅋㅋㅋ 웬만하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과 팔로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인스타 교환하자고 해서. '적극적인 사람이다.' 서로 교환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용



박지영

저는 원준님 첫 만남이. 전날에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은 상태로 갔지만, 떨린 상태로 갔어요. 청인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한 적이 있지만, 2인극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새로운 인연의 한 사람이 생겨서. 어떤 사람일까? 떨린 상태로 갔는데 수어 워크숍에서 정말 몰입하고 표정도 막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되게 신기하다,,ㅋㅋ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랬던 것 같아요



박지영

원준님 연출님이 자꾸 친해지라고 할 때 어땠어요?



이원준

친해지기 위한 워크숍도 해보고. 백문백답 움직임 등 시간이 지나며 친해질 거라 생각했지 억지로 친해지라고 하면 오히려 뭔가 거부할 수 있잖아 ㅋㅋ



박지영

맞아요

김미란



그래서 핸드스피크분들 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ㅋㅋㅋ



박지영

왜요……ㅋ



이원준

'지영의 모습 거짓말이다'라고



박지영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드러낸 지영이 모습이 아니라… 술 먹은 지영이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김미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습하면 가끔 그런 코멘트 듣잖아요

박지영



어떤 코멘트요?

김미란



소극적으로 보인다면가 너 진짜 모습 안보인다는 코멘트들?

박지영



나는 이 현장에 적응을 조금씩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 내가 이 현장에 적응을
못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원준



그렇구나..

김미란



원준은 어땠어요? 궁금

이원준



사실 나도 그냥 지영이 적응 잘하는 줄. 근데 이해되는 게
내가 어디에서 누구 만나던 전부 나인데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김미란



오 그럴 수 있겠다

이원준



어디에서든 같은 사람일 필요도 없구. 한 캐릭터를 유지해야 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 같아요. 한 성격으로는 대본 속 인물도 나도 표현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영의 모습은 전부 지영이일 뿐이다

김미란



오늘.. 지금 약간 슬럼프 느낌

박지영



ㅋㅋㅋ

이원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미란



드디어 나에게 창작공감이란..

이원준



창작공감이란 나의 무지함을 알아간 그리고 배려받은 순간들

박지영



나에게 창작공감이란... 모르겠다.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김미란



그리고 관객분들께 한마디씩도 해주셔요

이원준



관객 여러분 유튜브 보듯이 우리의 소소하지만 대단한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스킵하지말고 ♥

김미란



여역시 베테랑 시즌 배우. 구) 시즌단원

이원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영

관객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세계에 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관광하고 가세요. 너무 관광 소개 글인가..

김미란



ㅋㅋㅋㅋㅋㅋㅋㅋ



박지영

그저 관광하듯이. 영화 보듯이. 티비 보듯이 즐겁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

김미란



널 오전 연습이니까 일단 자고
제가 내일 낮에 몇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박지영

얼른 주무시고 곧 아침에 배요!ㅋㅋ



이원준

수고하셨습니다 ㅋㅋ 내일 봐어요!!





청인 스타프 및 배우 수어 워크숍

기본적인 소통을 위해 청인들 수어를 배우다.



백문백답, 얼굴 그림, 컵차기

- 두 배우가 서로 만나기 전 연출님이 준비한 백문백답을 작성해 자신을 설명하다.
- 작성한 백문백답을 바탕으로 상대의 모습을 상상해 그리다.
- 서로 대사를 주고 받듯 호흡을 맞춰 컵을 차면서 서로 주고 받다.

2021.08.19

2021.09.09

2021.09.05

2021.09.10



움직임 워크숍 ①

다양한 대화의 방식을 찾기 위해 몸을 매개로 하는 대화를 시도하다.
서로의 몸을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보고 눈을 감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준다.



인생 연대표 작성

두 배우가 각자 인생 연대표를 작성하며 자신을 소개하다.
윗줄에는 역사적 사건과 기억에 남는 사회적 이슈를, 아랫줄에는 해당 연도의 자신의 나이와 인상 깊었던 사건들을 작성하다.



움직임 워크숍 ㉔

서로 인터뷰하기

두 배우가 서로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서로를 인터뷰하다.

2021.09.12

2021.09.27

2021.09.16

2021.09.30



신체행동연기기술 워크숍 ㉕

사물상대 만나기(연필깎기)

두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 인물을 분석하듯 서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다.
워크숍을 통해 대상이 아닌 상대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행하다.

신체행동연기기술 워크숍 ㉖

일상생활에서의 작용으로 사물과 사람 상대를 만나다.



배드민턴, 릴스, 빙고

함께 해보고 싶은 것으로 지영은 인스타그램 릴스 찍기를, 원준은 배드민턴 치기를 제안하고 도전하다. 식료품, 배우, 가수 등을 주제로 수어와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빙고게임을 하다.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도하다.

신체행동연기기술 워크숍 ㉔

두 배우가 김애란의 단편소설 <가리는 손> 중 한 장면을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제언어를 사용해 연기하다.

2021.10.13

2021.10.27

2021.10.21

2021.10.31



신체행동연기기술 워크숍 ㉕

생각 상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다.



음악 워크숍 ㉖

수어가 지닌 음악성을 활용해 나레이션을 하고자 판소리 워크숍을 시도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고수와 소리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자 개념을 학습하다. 중모리 장단에 맞춰 움직여보고 서로 동작을 맞춰보다.



음악 워크숍 ②

2021.11.01



연습 연대표 작성 ①

다큐멘터리 연극을 연습하는 지영과 원준을 연기하기 위해 그간의 연습과정을 복기하다.
주요 워크샵과 활동들을 연대표 형식으로 작성하다.

2021.11.08

2021.11.04

2021.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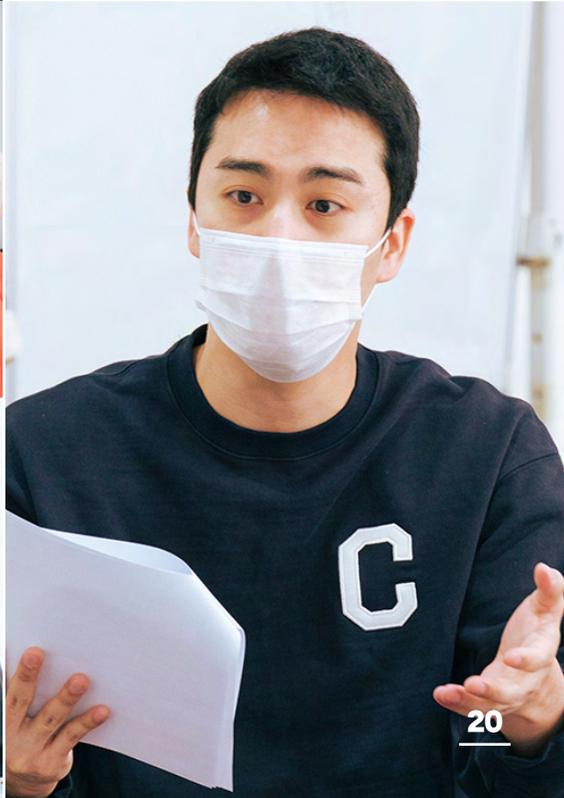
겨울 워크숍

두 배우가 한 캐릭터가 되어보기 위한 움직임을 해보다.
거울처럼 똑같이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되, 리더를
정해 누군가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연습 연대표 작성 ②

연습일지를 다시 보며 연습과정의 기억을 더듬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하며 각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이야기하다.





만드는 사람들

출연

농인 배우 **박지영**
청인 배우 **이원준**
한국수어통역 **김보석 남진영**

스태프

구성·연출 **김미란**

무대 **송성원**
조명 **박유진**
음악 **이향하**
의상 **EK**
영상 **헤즈킴**
인터랙티브 **고동욱(EASThug)**
음향 **김성환**
조연출 **도민주 박아름**

한국수어통역 **김보석 남진영**
신선아 이화정(수어통역협동조합)

무대감독 **김민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조명오퍼레이터 **박지원**
음향감독 **음창인**
음향오퍼레이터 **정하윤**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최성관**
의상진행 **박희민**

무대제작 **세원무대미술**, 대표 **신한영**
의상제작 **이케이코스튬(EKCOSTUME)**, 대표 **이은경**
조명프로그램머 **김주희**
조명팀 **김주희 신희 박주영 이보경 김의연 박하림**
음향팀 **김학준**
인터랙티브 프로그래머 **김상완 송정은**
영상장비비치 **이스트허그(EASThug)**, 대표 **고동욱**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승이**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황지연

연습·공연사진 **김신중**
홍보영상 **오슬로프로젝트**, 대표 **이영관**
기록영상 **연두픽처스**, 대표 **조윤수**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이너 **스튜디오 봄봄**, 대표 **김은총**
옥외광고 **영기획**, 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티켓 **김보전**
매포 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이민경 임지은 송 솔 김지수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김민경 문채림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공연장 내 수어통역 **이수현 안강숙 윤하원 김경은**

프로그램북 디자인 **하이버 스튜디오 HYBR**,
대표 **권혁배, 윤서진**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 대표 **신동복**

[창작공감: 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작품개발 책임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조유림**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김훈일 김정연**
제작진행 **김가은**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인터넷/카메라
앱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2022

국립극단
공연안내

NTOK.OR.KR

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2.11.-2.13.

공동기획

백성희장민호극장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2.28.-3.27.

명동예술극장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철

밤의
사막 너머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신애연 연출 동기환

금조 이야기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배해률 연출 미래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
(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김미란

커뮤니티
대소동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연출 이진업 구성 장영

소극장판-타지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강보름

제5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4.13.-4.17.

공동기획

명동예술극장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5.11.-6.5.

명동예술극장
작-연출 전윤환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더>

5.19.-6.12.

소극장 판
작 나수민 한현주 허선혜 연출 권영호

앨리스 인 베드

8.24.-9.18.

명동예술극장
작 수진 손택 연출 이연주

스트레인지 뷰티

9.1.-9.18.

공동제작

소극장 판
작 공동창작 연출 배요섭

채식주의자

9.2.-9.25.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한강 각색-연출 셀마 일루이

세인트 죠운

10.5.-10.30.

명동예술극장
작 조지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11.2.-11.27.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작-연출 정진세

발가락 육상천재

11.3.-11.27.

소극장 판
작 김건주 연출 서중식

스카펄

11.23.-12.25.

명동예술극장
원작 물리에르 각색-연출 임도완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국립극단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커뮤니티 대소동

연출. 이진엽

작. 공동창작

구성 장영
무대 송성원
음악 음향 김성환

출연
김경림 김민서
김시락 박규민
박하늘 이애리
조재현 최선애
최원석

2022. 3. 30. - 4. 10.

국립극단 소극장 판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희곡은 수많은 대화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는 어쩌면 대화를 연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